

# 녹조 유발 오염원 사전 억제로 여름철 건강한 물환경 조성

### 환경부 '녹조 대책' 본격 시행...조류경보제·대응상황반 운영 취·정수장 관리, 녹조 제거 장비 배치·환경대응용수 방류 등

환경부가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대비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예년과 강수량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 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 수역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우선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 녹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조 빈발지역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수·폐수처리장(147개소)의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4월부터 9월까지 강화해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 유역(내성천·대청호·보현산호·장령한반도)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 저감을 추진한다. 또 무인기 등 감시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환경부는 또한 전국 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가 높거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큰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부득이하게 녹조가 발생할 경우에는 녹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월)을 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하면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 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등을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녹조 관련 연구개발도 계속 추진해 녹조 대응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 녹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 “방치되는 폐기물 막자”...처리 책임 강화

### 공제조합·보험사 처리이행 보증범위 1.5→2배로 확대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는 허용 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증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늘어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주기는 1년 단위로 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초과 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호 생태계교란 큰입배스 퇴치작업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환경의 날을 맞아 장성호를 방문, 생태계교란 생물인 큰입배스 퇴치작업을 벌였다. <영산강청 제공>

## 행복한 마을만들기 '학동아파트 살롱'

### 백화·학1·학2·아이파크 입주자대표, 주민간 문제해결 방법 공유

광주 동구 학동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는 학동 백화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제2차 '학동아파트 살롱'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구 공모사업인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동아파트 살롱'은 학동 내 백화·학1·학2·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모여 아파트 자체 사업과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협의체는 지난 4월 준비회의를 통해 학동 내 아파트를 방문해 매월 1회 진행하기로 하고 5월 학동 아이파크 주민회의실에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6월 모임에서는 학동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아파트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아파트 내 안전 시설물 점검 및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학동아파트 살롱'은 기존의 경직된 회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훈 학동장은 "학동은 신규 아파트가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무엇보다 원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소통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아파트공동체를 통한 이웃 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학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아파트 살롱'은 매월 1회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제3차 학동아파트 살롱은 7월 2일 학2마을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대, 교직원 '백신휴가' 도입

### 접종 독려·안전한 캠퍼스 조성

광주대학교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교직원에게 백신 휴가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백신 휴가제도는 교수와 직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교직원은 최장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나흘간의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김혁중 총장은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과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한 만큼 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얼음물 드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화물차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무료제공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두행)는 8일 여름철을 맞아 운전자들에게 얼음물을 하루 100개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ex화물차운전자기 있는 순천-완주 선 오수휴게소 양방향 주유소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얼음물을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

타났다.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여름철 졸음운전 감소 대책으로 얼음물을 무료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생수얼음 제공', '휴식-마일리지' 도입 등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